

대구광역시 보도자료

변화와 성장* 더 나은 내일	제공일자	2026. 8. 18. (화)	
	섬유패션과장	황영희	803-3330
	패션의류팀장	김학연	803-3360
	담당자	김찬익	803-3361

추경호 대구시장, ‘경제 대개조’ 기업현장에서 답 찾겠다

- ▶ 섬유산업 AX 전환·고부가가치화로 제조 경쟁력 강화
- ▶ (주)보광INT·원창머티리얼(주) 방문... 제조 혁신 현장 점검·기업 목소리 청취
- ▶ 추경호 시장 “대구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과 중소기업...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대구 만들 것”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섬유산업의 AX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월 18일(화) (주)보광INT와 원창머티리얼(주)를 찾아 제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산업통상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AX기반 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섬유·봉제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AX(인공지능 전환):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접목해 생산공정을 자동화·지능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제조혁신 기술

대구시는 지역 섬유산업의 AX 전환을 위해 기업과 연구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개발 기술을 제조 현장에서 실증·검증하고, 검증된 기술과 성공 모델을 지역 기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기업의 제조 혁신을 지역 섬유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추 시장은 이 같은 AX 기술의 현장 실증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먼저 (주)보광INT를 찾았다. (주)보광INT는 원단 생산부터 가공·봉제까지 원스톱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방·소방 등 특수복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AI 제조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추 시장은 (주)보광INT에서 김성만 한국섬유개발연구원장으로부터 ‘AX기반 봉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추 시장은 “섬유산업이 다시 도약하려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 연구기관이 AI 자율제조 기술을 기업 현장에서 실증하고 검증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확산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경량 스포츠·레저 원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으뜸 기업으로 직조·염색·봉제까지 원스톱 생산 체계를 갖추고 친환경 소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창머티리얼(주)를 방문해 기업의 성장 전략과 제조 혁신 사례를 청취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대구 경제의 뿌리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섬유·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이 AX 기술을 통해 첨단화·스마트화해야 대구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서 듣고 해결책을 찾아 기업 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 패션 봉제 AX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세부내용(별첨)